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고양시민 교통권 회복에 나선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월 5일 열린 제2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긴급발의되고 고양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고역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김포, 강화, 인천 공항 등으로 이동하는 고양시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날 고양시의원 전원은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경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여 고양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곡동 1.84km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건설되어 2008년 5월 개통하여 경기도가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계약하고 개통 이듬해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여 일반 승용차는 1,200원, 대형차는 2,4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후원물품 전달

고양시의회는 2월 9일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이길용 의장과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의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구입한 29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의원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길용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가계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고양시의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물품은 관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배분하여 전달할 예정으로, 고양시의회는 매년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건강상식

우리 아이 공격하는 아나필락시스 대처법

입학, 새 학년·새 학기 등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3월, 아이들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이라면 경우에 따른 초기증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주치의와 논의하여 학교와 공유해야 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아나필락시스란?

식품,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수 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이다. 주요 원인은 식품이 약 85%, 약물이 약 7%이며, 이미 알고 있던 알레르기 원인 물질뿐 아니라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알고 있던 원인으로 인해 재발하기도 한다.

주요증상은?

- ① 피부나 점막의 가려움증, 발적, 홍조, 홍반, 두드러기, 부종(피부, 얼굴, 눈, 입술, 혀, 입안 등) 등으로 80~90%가량 흔히 발생하는 증상
- ② 콧물, 기침, 천명, 이상한 호흡음, 호흡곤란, 청색증, 발성 장애 등 호흡기 관련 증상
- ③ 구토, 오심,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
- ④ 창백, 가슴 통증, 심한 발한, 저혈압, 심정지, 어지러움, 불안증, 감각 이상, 근무력증, 요실금, 의식 이상, 의식 소실 등 심혈관 및 신경계 증상

예방 및 관리

식품·약물 알레르기가 있지만, 아나필락시스는 경험하지 않은 아이의 경우	알레르기 원인을 알고 있고, 과거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아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는 급식표 등을 매번 확인해야 한다. ※ 급식표 또는 공산품 간식 등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면 담당 교사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대비를 한다. • 알레르기 자연 경과와 새로운 원인 확인, 아나필락시스 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상담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악화 요인, 새로운 원인 등에 대하여 알아둔다. • 공산품 간식이나 식품을 먹을 때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꼭 확인하고 먹도록 아이에게 알려준다. ※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연 경과를 확인하도록 한다.